

|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

특고 사업장 단체교섭 현장 사례 발표

김미영 전문위원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제36차 전체회의('20.4.29.)에서 근로자대표 제도 정비 방안에 대한 노사정 입장 조정 논의는 향후 간사단회의에서 계속 진행하기로 하여 그 결정을 유보하였다.

제37차 전체회의('20.6.26.)부터 특수형태 고용 종사자의 계약 및 교섭 실태 논의를 시작하였다. 위원회는 특수형태 고용 종사자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등 개별적 보호방안에 대한 논의는 많이 다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위원회의 이번 논의는 특수형태 고용 종사자의 노동조합 및 단체교섭에 중점을 두기로 하였다.

택배기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 소위 '전통' 특고 종사자가 중심인 노동조합 중에서 고용노동부 또는 각 지자체의 설립신고필증을 득한 경우들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 단체교섭이 어떻게 행해지고 있는지, 주요 단체교섭 대상사항과 범위는 무엇인지, 단체교섭 과정에서 분쟁은 주로 어떤 사항에서 발생하는지 등에 대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현장의 사례 발표를 먼저 청취하기로 하였다. 먼저 사업주의 입장에서 롯데택배 대리점협의회와 롯데글로벌로지스, 학습지사업주단체인 교육산업협회의 사례 발표가 있었다. 그리고 노동조합 입장에서 라이더 유니온, 경남대리연대노조, 전국보조출연자노조의 사례 발표가 있었다. '20.8.21. 개최 예정인 제40차 전체회의에서는 특고 종사자의 고용 및 노동 실태를 조사한 전문가 발제를 예정하고 있다.

